

‘나 혼자 산다’ 사상 첫 40% 돌파...1천만명 눈앞

지난해 1인 가구 972만4256세대...10명 중 4명 ‘60대 이상’
주민등록인구 5143만9038명으로 1년새 20만명 줄어들어
국민 평균연령 0.5세 늘어난 44.2세...전남 ‘48세’로 최고

도시화와 고령화에 따라 1인 가구 수가 갈수록
늘어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뒀으며, 주민등록인구
는 1년 새 20만명이 감소했다. 고령화 심화로 국민
평균 연령은 0.5세나 높아져 44.2세를 기록했으
며, 시도별로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남이

48.0세로 가장 높았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이며, 주민등록세대는 2370
만5814세대다.

이 가운데 1인세대가 972만4256세대로 1000만
세대에 육박했다.

1인세대 비중은 41.0%로 1년 만에 0.7%포인트
나 높아졌다. 1인세대 비중은 2021년말 40.3%
(946만1695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바
였다.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1%(185만515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은 60대 18.1%(175만8095세대)였다. 이를 합치
면 60대 이상이 37.2%로 3분의 1이 넘는다.

50대는 161만6451세대다. 50대 이상 1인가구를

모두 합치면 약 523만세대로 과반이다. 30대는
163만4274세대, 20대는 152만1514세대이며, 40
대는 129만7192세대로 상대적으로 적다.

1인세대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다.

1인세대와 2인세대 합계 비중은 65.2%로 전년
보다 1.0%포인트 높아져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
졌다. 3인 이상 세대의 비중은 34.7%로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
(5163만8809명)보다 0.39%(19만9771명) 줄었

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말 5184만9861명에서
2020년말 5182만9023명으로 줄어든 이후 3년 연
속 감소했다.

고령화 심화 속에 평균연령은 44.2세로 전년
(43.7세)보다 0.5세 높아졌다.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로 93만명이다.

시·도별 평균 연령은 전남이 48.0세로 가장 높으
며 경북 47.5세, 강원 47.0세, 전북 46.8세, 부산
46.1세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38.1세
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국농민회 화순군 농민회원들이 22일 오전 화순군의 한 논에서 ‘침수피해 작물 보상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논콩을 갈아엎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정부가 논콩 심으라고 했으니...침수피해 전액 보상을”

광주·전남 농민들 “모두 고사...논에 밭작물 키우라는 것부터 잘못”

광주·전남 농민들이 애써 심은 콩을 트랙터로 갈
아엎었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권장한 ‘논콩’
(밭작물인 콩을 논에 심은 것)이 수해를 입었음에
도 농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 전남연맹(연맹)은 22
일 보성·영광·화순·강진 등 전남 곳곳에서 논콩을
갈아엎고 “정부가 침수피해와 배수불량으로 인해

고사한 논콩 기대수의 전액을 보상하라”고 외쳤
다.

올초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을 발표
하면서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서 보리,
콩, 사료작물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
책을 시행했다.

광주·전남 농민도 논에 콩과 같은 사료작물을 심
었다. 하지만 올해 장마가 끝나자 논에 심은 콩 작

물이 모두 고사했다는 것이 광주·전남 농민들의 주
장이다.

연맹은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국내산 쌀
생산 과잉’으로 보고 논에 콩을 심으라고 전락작물
직불제까지 지급하면서 장려했다”면서 “배수조차
되지 않는 논에 밭작물을 키우라는 것 자체가 무리
였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논콩 피해액
을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한 것”이라며 “정부는 침수피해로 발생한 피해 뿐
아니라 장차 생길 수익까지 모두 보전해야 할 책임
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실시와
논콩 피해 면적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농협에 피
해 논콩 전량 수매 및 가격 보장을 촉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법부, 강제동원 ‘셀프 배상’ 철폐 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한 제 3차 대외변제 공탁
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
을 정부가 대신하는 강제동원 ‘셀프 배상’이 사법
부의 철폐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제동원피해
자지원재단(재단)이 신청한 2건의 공탁신청 불
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
방법원(지난 14일)과 광주지방법원(지난 16
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기각 결정이다.

단체는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강제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 했던 정부
의 불의한 시도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 3차 대외변제 해법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
하고 자국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
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정부
는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
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재판부의 충고를 무
겁게 받아들이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한 것은 한일관계 회복이
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한 이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
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
자들이 일제에 의해 불법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인식은 눈곱만큼도 없이 ‘오른손이 주
든 왼손이 주든,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그저 돈
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들을 그저 돈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폄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직
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학부모-교사 직접면담 불가·교사 정보 비공개”

전남교육청, 변호사 배치 등 교권 보호 강화

전남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를 배치해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전남지부
·교사노조·교총·실천교사모임·전남도의회·학부
모단체·교육청 관계자 등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같이 결
정했다.

우선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학부모 등에
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고 민원
은 대표전화와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
기로 했다.

전화 민원응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챗봇을 적극 활용하고 특이 민원은
민원응대팀이 맡는다. 녹음 가능한 전화기, 민원
예절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제공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교육활동 침
해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
고 교원책임배상보험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
심공제로 전환해 변호사 선임료, 변호서비스 등
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각 분리 조치 할 수
있도록 ‘공존교실’ ‘온마음 온종일케어’ ‘대안교
실’ 등을 활용한다.

도 교육청은 통합 학교지원팀이 설치돼 아동
학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성폭력 등의 사
안을 적극 지원한다.

상담수퍼바이저·퇴직교원 등으로 ‘위기교원
지원단’을 구성해 위기 교사를 지원하고 대면 상
담이 어려운 지역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도
운영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21	8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총계		83	22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3. 10. 6(금)

· 전형일: 2024. 1. 19(금)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3. 9. 11(월) ~ 15(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